

대한불교의 역사·체계·현황

한국어 485

기말 보고서

샤넌 페더슨

Shannon Pederson

## 차례

I.	서론.....	1
II.	불교의 유입과 발전.....	2
	1. 불교의 탄생 및 삼국에의 유입.....	2
	2. 통일신라와 고려·조선의 불교.....	4
III.	불교의 종류와 실천 방법.....	5
	1. 불교의 다양한 유형·종파.....	5
	2. 불교의 핵심 개념.....	6
	3. 불교의 일상적 실천 방식.....	8
IV.	대한불교의 현대적 영향.....	8
	1. 현대 불교의 남아있는 사회적·문화적·이념적 영향.....	8
	2. 불교의 관광사업 - 템플스테이 .....	10
V.	결론.....	10

## I. 서론

가장 순수한 형태의 불교는 일반 대중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찾고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한 사람의 노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싯다르타 고타마, 아니면 석가모니라는 이런 인물은 수천 년 전에 네팔에서 태어났다. 보편종교로서 석가모니의 말씀과 경전으로 비롯된 불교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었고, 불교의 영향은 특히 한국에 강한 뿌리를 내렸다. 초기 삼국시대 이래로, 불교는 가정에서 궁궐까지 한국인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에도, 한국의 불교 신자들의 수가 감소하는 중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빠르게 세계화되고 있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관광사업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성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한국의 오래된 역사와 현대적 사회를 이해하려면 불교의 영향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물론 이 에세이를 쓰려고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다. 나는 미국인이니까 이야기나 영화 밖에 불교나 승려에 대해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 교과서의 불교에 대한 챕터를 읽은 후에 이런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배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연구 과정을 시작해 보니 '불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한 주제라는 것을 깨달아서 에세이를 정리하게 세 가지의 연구 질문을 준비하였다. 첫 번째로 불교가 어떻게 창출되었고, 한국에 어떻게 들어와서 발전했냐고 물어보아야 한다. 두 번째, 불교 중에 어떤 종류가 있고 불교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불교가 현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질문이다.

## II. 불교의 유입과 발전

### 1. 불교의 탄생 및 삼국에의 유입

한국에의 불교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에, 전 세계적인 확산보다 먼저 온 불교의 기원에 대해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기원전 7 세기에 현대의 네팔에서 태어난 고타마 싯다르타 (Siddhartha Gautama, B.C. 623-544)가 불교를 수립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왕족으로 태어난 고타마는 궁전에서 자라서 29 년 동안 아버지로 의해 바깥세상에 있는 괴로움으로부터 고립되었다. 하지만, 왕의 방어진이 불완전하였으니 고타마는 노인, 아픈 사람, 시체, 떠돌아다니는 고행자로 이루어진 네 개의 광경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고타마는 삶의 괴로움을 피해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더 많은 고통으로 끝나기만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삶이란 원하는 것과 상실로부터 나오는 괴로움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고타마는 궁전을 떠나기로 해서 6 년 동안 여러 가지의 종교 규율을 해 보았고, 결국에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깨달은 자'를 의미하는 부처가 되었다 (Mark, 2020).

불교가 800 년 동안 융성하면서 부처의 말씀은 겸손한 기원에서 근처의 국가로 퍼져 고구려와 신라, 백제까지 확대되었고, 여기는 삼국의 선택된 종교가 되었다. 불교가 성립되는 동시에 인도는 거대한 사회적, 종교적 변화를 경험하는 중이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은 불교의 새로운 개념과 이념에 흔쾌히 응하였다. 아쇼카대왕과 십육나한(十六羅漢)과 같은 유명한 인물의 도움으로 불교는 인도와 네팔에서 티베트, 스리랑카, 몽고 등으로 삼시간에 퍼져 나갔. 4 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불교는 중국에 들어갔고 삼장법사와 같은 유명한 승려들 덕분에 인기 상승을 보였다 (Choi, 2017).

《삼국사기(三國史記)》 및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고구려는

372년(소수림왕 2년), 백제는 침류왕 1년(384)에 중국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372년 이전에 고구려와 백제에 불교가 민간경로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왕권은 민중 가운데서 윤리관과 왕의 권력을 강화하도록 새로운 지배이념이 필요하므로 불교는 삼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다 (Im, 2019).

고구려와 백제는 불교를 꽤히 흡수해서 제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불교를 훨씬 뒤늦게 받아들여서 몇 명의 인물의 희생 덕분에만 수용되었다. 신라의 육부(六部)의 주장들은 불교를 공인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며 귀족들은 전통 신앙을 계속 강력히 강조하였다. 하지만 법흥왕(法興王, 514-540)의 즉위에 이어 법흥왕, 그리고 왕을 위하여 근신(近臣)인 사인(舍人)의 일을 수행한 이차돈은 불교를 전국적으로 수립하고 싶었다. 이런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차돈은 자신이 희생할 것을 제안하고 따라서 이차돈은 법흥왕의 손으로 살해되었다. 일 년 후 이차돈의 순교를 통하여 불교가 527년(법흥왕 14년)에 드디어 공인되었으며 천경림(天鏡林)에 최초의 사찰이 창건되었다. 이차돈이 순교한 후에는 해마다 이차돈의 희생을 기리러 흥륜사에 모인 사람들이 많았고, 오늘날까지 이차돈을 위한 소상과 순교비가 남아 있다 (Go, 2017). "불법(佛法)을 흥하게 한 왕"이라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을 가진 법흥왕의 지배하에 불교가 신라에 확고부동하게 강화되며 "불법의 진리를 흥하게 한 왕"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진흥왕(眞興王, 540-576)은 황룡사, 흥륜사와 같은 사찰을 건립하였다 (Choi, 2013, p. 148).

## 2. 통일신라와 고려·조선의 불교

불교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내내 큰 변화와 발전을 계속 경험하였고, 많은 주요 인물들은 일반 대중에게 새로운 불교적 사고를 가져다주었다. 통일신라시대의 가장 잘 알려진 승려들은 원효(元曉)와 의상(義湘)이었다. 원효는 왕족과 양반, 헌신적인 승려만 실천할 수 있던 불교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며, 화쟁(和諍)이라는 사상을 통하여 "다툼을 조화시킨다"라는 개념을 강조하였다. 한편, 의상은 해동 화엄종(海東 華嚴宗)을 설립하고 대승불교의 더 작은 부분인 교종 불교에 집중하였다. 고려 초기에 선종과 교종의 차이들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선교양종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게 화합을 강조한 원효의 화쟁이 사용되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파인 조계종이 수립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선종과 교종, 조계종, 등 같은 오래된 불교적 이념과 종파를 찾을 수 있고 이런 개념들은 다음 챕터에서 더 상세히 논의된다.

불교가 조선시대에 들어가자 성리학의 강한 유입과 함께 지도자간의 파산과 부패, 정치적 투쟁으로 인하여 불교는 급격한 감소를 겪었지만, 완전 파괴를 피하였다. 조선시대를 세우던 신진사대부들은 유교를 제도적으로 공인해서 불교를 억압하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불교는 백성과 여성이 선호한 종교의 역할을 계속해서 불교를 유교와 함께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많았고, 이러한 사실은 다른 이념을 감안하려는 한국인의 마음과 원효의 "다툼을 조화시킨다"라는 철학을 반영한다. 게다가 조선은 외적의 공격을 거듭거듭 받았기 때문에 삼국시대 동안 만들어진 호국불교(護國佛敎)라는 사상이 강해져서 승려들은 조선 군대를 위하여 기꺼이 싸우고 생명을 바치었다. 결국에는 조선시대의 막이 내리면서 불교는 개방과 세계화로 인하여 일어난 일본이나 미국 같은 외부 국가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Choi, 2013).

### III. 불교의 종류와 실천 방법

#### 1. 불교의 다양한 유형·종파

현존하는 불교는 소승(남방, Hinayana)불교 및 대승(북방, Mahayana) 불교의 두 가지의 종류로 지역별로 나눌 수 있고, 각 종류는 특정한 풍습과 철학을 가진다. 석가모니는 불교를 처음 수립했을 때 소승불교만 있으며, 인도, 스리랑카, 태국 등과 같은 남아시아 국가에서 인기를 얻었다. 소승불교의 핵심 사상은 불교 이론 공부하기를 통하여 자기 완성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석가모니의 말씀을 바탕으로 쓰인 경전(經典)을 엄격히 고수한다. 불교의 탄생 200년 뒤에 상좌(Theravada)불교가 스리랑카에서 나왔다. 상좌불교는 소승불교와 비슷한 점이 많이 나누어 가지니 둘 다 똑같은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Do, 2021). 불교의 두 번째 주요 유형은 대승불교인데, 이러한 종류의 불교가 승려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승려의 필요에 맞게 바뀌었고, 그 결과 티베트 및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 대승불교는 독실한 승려 외에 보통 사람, 여성, 범인도 석가모니의 경전을 열심히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대승불교는 다른 종교와 철학으로부터의 영향에 훨씬 더 개방적이기 때문에 유교와 도교, 무속신앙, 한국의 다른 지역 종교와 더 쉽게 결합한다 (Choi, 2013).

승려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결과 대승불교는 삼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고, 동시에 여러 수행체계와 종파로 나뉘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분열 외에 불교가 교종(敎宗) 및 선종(禪宗)으로 분단되었고, 통일 신라 시대에 교종은 인기를 많이 얻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일 신라 시대 동안 살았던 의상은 당나라에서 불교를 공부해서 새로운 화엄종을 신라에서 설립하게 귀국하였다. 의상이 가져온 화엄사상은

교종을 대표하는 철학이 되었고, 특히 깨달음을 얻으려면 석가모니의 말씀에 근거하는 경전을 공부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선종은 당나라가 몰락하고 고려시대가 건설된 뒤에 인기를 끌고 시작하였으며 현대 한국의 가장 큰 불교 체계이다. 선종은 경전에 집중하는 것보다 참선을 통해 마음속에 있는 깨달음을 찾는 방법을 가르친다 (Choi, 2013). 선종과 교종은 많은 더 작은 종파로 나뉠 수 있다. 한국에의 대표적인 선종 종파는 지눌로 의해 수립된 조계종(曹溪宗)과 그보다 정도는 덜하게 천태종(天台宗)과 태고종(太古宗)이며, 교종의 가장 잘 알려진 종파는 의상의 화엄종이다 (Noh, 2019).

## 2. 불교의 핵심 개념

한국으로 들어간 불교의 길과 불교가 수 세기 동안 어떻게 발달하고 달라진 것을 조사하였으니 이러한 오래된 종교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기 시작할 수 있다. 다른 대부분의 종교와 달리 불교는 지구를 만들어서 지배하는 신령이 없다. 물론 불교 신자들은 고타마 부처가 불교의 훌륭한 창시자로 여기지만 석가모니와 마찬가지로 누구든 부처가 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북방 국가에서 실천되는 대승불교에서는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은 다불사상(多佛思想)이라고 불리고, 부처가 되려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보살(菩薩, Bodhisattva)이라고 한다 (Lee, 2017). 불교 신자가 되려면 부처를 상징하는 불(佛), 부처의 말씀인 경전을 상징하는 법(法), 그리고 석가모니를 따라 수행과 중생 구제를 하는 승(僧)으로 구성된 불교의 세 가지 보물(삼보, 三寶) 아래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그 다음에 여덟 가지 바른 길(팔정도,

八正道)을 열심히 실천하고 욕망을 버리면 괴로움을 영구화하는 윤회(輪廻, Samsara)에서 벗어나 열반(涅槃)에 이를 수 있다 (Kim, 1997).

하지만 열반에 드는 것은 욕망을 표면적으로 버리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사실 불교도들은 불교 철학 및 생활 방식에 관한 많은 다른 개념과 경전을 공부하고 이해해야 한다. 불교 신자들은 연기설(緣起說, *pratītyasamutpāda*)의 렌즈를 통하여 세계를 이해합니다. 이런 근본교리에 의하면 모든 인간과 동물, 사물 등은 공존의 관계에 있고, 자신과 타인이 피차일반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모든 것에 연민과 자비를 베풀기는 중요하다. 붓다의 기본 진리는 삼법인(三法印)이라고 불리고, 이런 세 가지 진리의 징표는 무상(*aniccā*), 무아(*anattā*), 고통(*duḥkha*)으로 이루어진다. 더욱이 불교도들은 네 가지 고귀한 진리(사성제, 四聖諦, *ārya-satya*)를 받아들인다. 이런 진리에 따르면 고통(고제)은 원인(집제)과 끝(멸제)이 있고, 고통을 끝내기 위한 길(도제)이 있다 (Choi, 2013). 사람들은 고통을 끝내는 길을 따라가려면 "살생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불계로 구성되는 오계(五戒, *pañcaśīla*)를 지켜야 한다 (Lee, 2016). 그 밖에 불교 신자들은 주요 경전을 흔히 외워서 일상생활에 적용하기도 한다. 묘법연화경과 화엄경은 한국불교 사상을 성장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전이고, 이런 경문들은 보살의 길과 붓다의 기적적인 힘, 명상의 목적과 방식, 그리고 모든 지각 있는 것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Soh, 1996).

### 3. 불교의 일상적 실천 방식

현대적 불교도들은 불교를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간단한 일상적 활동을 한다. 다른 인간이나 동물의 고통을 예방하는 것은 불교 철학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로 채식하는 불교 신자가 많다. 그렇지만 한국의 현대적인 사회 가운데서 고기를 피하는 것이 힘들니, 한국에서 출가자가 아닌 평신도들 중에 동물성 식품을 먹는 사람을 많이 찾을 수 있다 (Choi, 2016). 또한, 불교의 팔정도는 "올바로 말하는 것"과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같은 것으로 구성되므로 불교 신자들은 이런 여덟 가지의 진리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팔정도의 "올바로 행동하는 것"을 실천하려면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핵심 풍습 중에 명상은 하나이고, 특히 선종에서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자신을 강조하는 명상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물론, 불교는 매우 다양한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불교를 해석해서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는 그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Park, 2020).

## IV. 대한불교의 현대적 영향

### 1. 현대 불교의 남아있는 사회적·문화적·이념적 영향

오늘날, 한국에는 자신을 불교도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불교의 흔적은 한국의 건축, 문화, 그리고 명절에서 발견될 수 있다. 2015년 현재, 한국의 전체 인구 대비 불교도의 비율은 약 15.5%이고, 이런 수는 21 세기가 바뀌는 무렵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다만 이 하강 추세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불교 신자들이 한국 종교인의 3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교가 여전히 한국의 주요 종교 중

하나인 것을 볼 수 있다 (KOSIS, 2015). 한국에는 약 900 개의 사찰이 남아 있으며, 가장 오래된 사찰은 원성왕 10 년(794)에 지어진 봉은사이다. 게다가, 한국식 사찰은 호놀룰루의 무량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Lee, 2020). 또한 한국에는 서울의 동국대학교와 같은 불교 관련 대학과 학과가 존재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청 비율은 하락하는 중이다. 잘 알려진 많은 한국의 명절들도 불교의 전통과 의식에 기원을 두고 있다. 조선 시대 동안 거대한 국가적인 행사가 된 연등회는 이 현상을 강하게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연등회를 부처님 오신 날에 기념한다. 조상에게 음식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는 풍속을 가지는 백중날도 고대 불교와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Kang, 1997).

가시적인 문화적 흔적 외에 불교의 개념들은 한국의 현대 사회 사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삼국시대 초기에서 비롯된 호국불교는 원래 국가 전체의 힘과 발전에 중점을 두어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평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불교의 국교 역할을 공인하던 왕실은 사람들이 평등하고 조화 있게 살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호국불교를 사용하고 싶었다. 호국불교의 영향은 단 하나의 종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종교와 사고방식을 가진 한국에서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게다가, 역사를 통틀어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순교한 수천 명의 승려, 예컨대 이차돈의 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호국불교는 한국의 문화와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였다 (Lee, 2007). 지금까지도,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 대한 한국인의 강한 자부심, 그리고 빠르게 세계화되는 세계의 영향으로부터 한민족 문화의 중요한 측면을 보호하려는 욕구에 부분적으로 반영된다.

## 2. 불교의 관광사업 - 템플스테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교에서 파생된 많은 전통과 이념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대 시대에 불교는 인기를 잃고 있기 때문에 사찰들은 새로운 관심을 얻기 위해 관광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템플스테이는 관광객들과 한국 시민들 모두에게 한국 불교 관광의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 되었다. 감소하는 불교도의 수와 처리하고 관광객들로부터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계종은 템플스테이의 개념을 2002 년경 만들었다 (Kim, 2001). 20 년 후에 템플스테이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불교문화를 경험하며,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인기 많은 방법이 되었다. 방문객들은 다도, 참선(參禪, zazen), 108 배, 수도원의 식사 등과 같은 활동을 체험할 수 있고 현실에 충실하는 것의 중요성과 불교 이상을 더 잘 이해하며 사찰을 떠나게 된다 (Templestay, 2022).

## V. 결론

이 에세이에서 나는 불교의 탄생과 발전을 요약하고, 불교의 종류와 주요 개념, 실천 방법을 설명하며, 현대의 한국 사회에 미치는 불교의 영향 분석하기를 통해 한국 불교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으려고 시도하였다. 불교는 오직 한 사람에만 의해 만들어졌지만, 기원전 6 세기에 남아시아 전역에 순식간에 퍼졌다. 수백 년 뒤에 인도에서 온 승려들은 불교를 가져가서 중국을 거쳐 삼국에 도착하였고, 법흥왕과 원효대사와 같은 많은 인물의 노력에 힘입어 불교는 공식적인 종교가 되어 큰 인기를 얻었다. 불교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내내 황금기를 누렸지만,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의 영향 탓에 심한 억압에 겪었다. 현대적인 형태의 불교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눌 수

있는데, 대승불교가 대한불교의 주요한 형태이다. 더욱이, 한국의 대승불교는 주로 선종과 교종으로 구성되고, 그 외에도 조계종과 천태종, 화엄종 등을 포함하는 종파로 나뉜다. 불교의 주요 이념과 실천 방식은 팔정도, 연기설, 삼법인, 사성제, 오계, 등과 같은 개념, 그리고 명상과 자비를 베풀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대한불교 신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국가 명절과 한국의 사회사상,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사업을 통해 한국인에게 큰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다.

지금 문제는, 불교가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템플스테이의 인기가 높아짐과 함께, 한국의 신세대는 불교 사상의 유용성을 다시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물질주의와 '빨리빨리' 문화에 빠져 있는 시대에서는 불안과 우울의 증가를 가로막게 불교 이념으로 돌아가는 것은 혜택을 많이 있을 것 같다. 깨달음을 찾거나 열반에 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현실에 충실하고 마음의 평화에 집중하기 위해 멈추면 세상의 문제들은 조금 더 다루기 쉬워진다.

## 참고문헌

- Choi, B. (2013). 종교와 철학. In H. Sohn & S. Cheon (Eds.), *Essentials of Korean culture* (pp. 135–162). essay, Korea University Press.
- Choi, H. (2016). 불교신자들은 왜 채식을 안할까. Hankookilbo. Retrieved December 13, 2022, fr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11161630524678>.
- Choi, K. (2017).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장의 참 모습.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Retrieved December 13, 2022, from [http://nm.snu.ac.kr/bbs/board.php?bo\\_table=maronie&wr\\_id=49](http://nm.snu.ac.kr/bbs/board.php?bo_table=maronie&wr_id=49).
- Do, M. (2021). 인도를 떠난 불교/상좌부-대승불교 선종 밀교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ehj8JA-M6g>.
- Go, Y. (2017). 이차돈(異次頓).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Retrieved December 13, 2022, from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6157](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6157).
- Im, K. (2019). 한국불교 역사. Naver Blog. Retrieved December 13, 2022, from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lpul1010&logNo=221504238361>.
- Kang, H. (1997). 불교와 한국문화-세시풍속. iBulgyo. Retrieved December 13, 2022, from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03>.
- Kim, W. (1997). 삼보(三寶).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Retrieved December 13, 2022, from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6607>.

Kim, W. (2001). 월드컵 템플스테이 한국불교 알리기 '효자'. Hyundai Bulgyo News.

Retrieved December 13, 2022, from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040>.

KOSIS. (2015). 성별/연령별/종교별 인구-시군구.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Retrieved December 13, 2022,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1502&con\\_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1502&con_n_path=I2).

Lee, C. (2020). 33 of South Korea's most beautiful temples. CNN. Retrieved

December 13, 2022, from <https://shorturl.at/aruwN>.

Lee, G. (2016). 오계(五戒). iBulgyo. Retrieved December 13, 2022, from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284>.

Lee, H. (2007). [특집] 현대의 호국불교이론. Bulkwang Media. Retrieved

December 13, 2022, from

<https://www.bulkw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0>.

Lee, J. (2017). 불교의 종류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 Sisun News. Retrieved

December 13, 2022, from

<https://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71>.

Mark, J. J. (2020). Siddhartha Gautama. World History Encyclopedia. Retrieved

from [https://www.worldhistory.org/Siddhartha\\_Gautama/](https://www.worldhistory.org/Siddhartha_Gautama/).

Noh, H. (2019). *한국 불교의 역사 - 교종/선종, 조계종/태고종/천태종*. Naver Blog.

Retrieved December 13, 2022, from

<https://m.blog.naver.com/kdjhmr/221593082204>.

Park, M. (2020). *불교 팔정도 / 팔정도 의미*. Korean Buddhist Broadcasting

System. Retrieved December 13, 2022, from <https://kbbtv.co.kr/32/65>.

Soh, G. (1996).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Retrieved

December 13, 2022, from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8856](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8856).

*Templestay*. (2022). VisitKorea. Retrieved December 13, 2022, from

[https://english.visitkorea.or.kr/enu/ATR/SI\\_ENG\\_2\\_6.j](https://english.visitkorea.or.kr/enu/ATR/SI_ENG_2_6.j).